



**[산업]**  
5G 시대 해킹·보안  
창과 방패의 싸움  
SKT, '양자암호' 방어  
05



Life

**[공기업]**  
한국동서발전  
'동반성장'  
가장 빛났다  
L4



# 고등학생, 제빵 교육부터 채용까지... 외국인 주부엔 한식조리법... 물고기 잡는 법 알려주는 '키다리 아저씨'로 다가간다



120 신세계푸드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

1995년 신세계푸드가 신세계 그룹의 급식사업부에서 분사해 현재 식품유통, 제조, 급식, 베이커리, 외식을 아우르는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하면서 한결같이 유지해 온 사회공헌활동의 철학이다. 2023년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해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신세계푸드는 일회성 물품 전달이나 후원이 아닌 업(業)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가며 든든한 고객 평판을 쌓고 있다.

### ◆키다리아저씨·베이킹 클래스

신세계푸드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는 '키다리 아저씨'와 '찾아가는 베이킹 클래스'가 있다.

'키다리 아저씨'는 조리사 또는 제빵사가 꿈인 취약계층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는 연 단위 프로젝트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에 회사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조성한 희망배달기금을 활용해 학생들의 학원비, 응시료, 조리용품 등 조리, 베이킹 관련 자격증 취득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신세계푸드의 종합식품연구개발LAB의 셰프들이 직접 멘토로 참가해 매월 조리실습, 모의시험, 맛집 탐방, 공장견학 등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전문성을 넓혀준다.

지난해 3월 서울 중구 무교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지원협약을 맺고 후원을 한 키다리아저씨 1기 고교생 20명 가운데 8명이 첫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신세계푸드는 키다리 아저씨 프로그램 이수 학생 중 우수 학생을 선발해 채용도 진행했다.

베이커리 사업의 특성을 살린 '찾아가는 베이킹 클래스'는 제빵사를 꿈꾸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2015년부터 구세군 서울후생원과 연계해 연간 4회 진행하고 있다. 신세계푸드 소속 제빵 기능사와 임직원들이 후생원생과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제빵 기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진로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하는 시간도 갖는다.

### ◆사랑의도시락·요리교실

급식사업의 특성을 살려 2004년부터 진행 중인 '사랑의도시락'은 올해까지 전달한 수량이 10만개를 넘는다.

'사랑의 도시락' 봉사활동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신세계푸드 본사와 전국 100여개 급식 및 외식 사업장, 공장 등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월 2회 임직원들이 직접 도시락 1,000여 개를 만들어 각



신세계푸드 셰프가 다문화가정 주부들에게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신세계푸드 임직원들이 협력농가 돕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급식, 베이커리, 외식, 식자재 유통 등 업(業) 특성 살린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세계푸드

### 1995년부터 이어온 사회공헌 철학 일회성 물품전달 아닌 業 특성 살려

### 연 단위 '키다리 아저씨' 지원부터 진로 상담하는 '베이킹 클래스'도 올바른 간편 가정식 '명절음식' 나눔 외국인 주부엔 만드는 법 가르쳐 연 4회일손돕기로 협력농가 상생



키다리아저씨 프로그램에서 신세계푸드 셰프들이 조리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리법을 가르치고 있다.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결혼가정 등 사회취약 계층에 전달한다. 급식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특성을 살려 영양식으로 메뉴를 구성하고, 직원들이 직접 가정에 찾아가 담소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

명절에는 떡국 떡, 곶탕, 불고기, 만두 등 신세계푸드의 올바른 가정간편식으로 구성된 명절음식을 나눈다.

재능나눔활동인 '다문화가정 요리교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12년부터 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과 재능기부협약을 맺고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주부와 자녀들이 한국의 음식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매년 급격히 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주부들이 한국 문화에 쉽게 적응해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 ◆협력농가 일손돕기

지난해부터는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농가와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활동으로 '협력농가 일손돕기'도 진행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식자재유통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농가 200여곳과 계약을 맺고 우수 종자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재배 방법 교육 등을 통해 농가와 장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협력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동시에 신세계푸드 임직원들이 직접 협력농가 직원들과 애로사항을 직접 경험해보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협력농가 일손돕기'를 연 4회 진행하고 있다.

김진규 신세계푸드 사회공헌팀장은 "식품 제조, 유통, 급식, 외식, 베이커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회사의 장점을 활용해 다양한 계층의 소외이웃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세계푸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이 우리의 진정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2023년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